

산업단지, 중금속 · 용제 오염 심각

환경공단, 중금속 6가지에 유기용제 2가지도 ... 토양 · 수질기준 초과

전국 주요 4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 전체 토양의 5.4%가 유류 ·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.

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<2010년도 산업단지 토양 · 지하수 환경조사>를 실시한 결과 41개 입주기업(5.4%)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. 지하수는 4개가 수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고, 수질기준 초과 4개소는 토양오염 우려기준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초과오염물질은 유류 31개소, 중금속 6개소, 유류 · 중금속 중복오염 1개소, 유기용제 2개소, 불소 1개소 등으로 집계됐다.

조사는 포항철강산업단지(183개), 대구3공업단지(74개), 광주시 하남일반산업단지(155개), 인천시 남동산업단지(354개) 등 766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.

포항단지는 183개 입주기업 중 13개(7.1%)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고, 지하수는 4개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대구3단지는 74개 중 11개(14.9%)에서, 하남단지는 155개 중 11개(7.1%)에서 기준을 초과한 유류 · 불소 등이 토양에서 검출됐다.

남동단지는 354개 중 6개(1.7%)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어선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.

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기준을 초과한 41개 입주기업에 대해 정화조치를 명령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1/07/19>